

##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

201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축섬을 찾으시였다.

축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이곳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주변환경은 여간 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모든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현장을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종전에 여기에 실내축구경기장을 건설하는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떠세우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축섬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거점을 꾸리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으로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들로 키워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마음이 얼마나 불같으시였으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렇듯 험한 건설현장을 기꺼이 걸으시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동강량안을 바라보시면서 축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축섬을 둘러보는 일군들의 눈가에는 금시 어려오는듯싶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응지에 떠받들리어 훌륭히 일떠설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인 과학기술전당의 웅건장중한 모습이.